



光州日報

제1746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5월 30일 (음력 5월 4일) 화요일



매니페스토 운동·배심원제 등 도입 불구

선거문화 개선 멀었다



5·31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이자,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됐던 '정책선거'가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외연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민단체들은 '매니페스토'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선언하고 '참공약, 협공약' 등 후보자별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나 선거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시민단체의 공약 평가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데다 공약 중심의 선거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책선거 실종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살림꾼을 뽑는 선거가 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상호비방·흡집내기·흑색선전 등 구태를 재연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시민참여경선과 시민배심원제 등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지방선거에 속속 도입했다.

중앙정치에 매몰 정책선거 실종
선거 막판 불법·흑색선전 난무

입했지만 이 또한 잡음과 혼탁으로 얼룩져 선거문화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

지방선거 막바지인 29일 후보들이나 선거 관계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인물과 정책을 알리는 긍정적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네거리브(부정적)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유권자들 또한 차분히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기보다는 당 바람과 중앙의 이미지 정치에 매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경우 초중반까지는 유권자들이 당보다는 인물과 정책 위주의 후보평가를 하면서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등 바람직한 지방선거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 현금 수수 혐의 체포,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정권' 발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괴습 등으로 당 지지도가 춤을 추고 이에 따라 지방선거 상황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또 다시 특정 정당 바람이 유권자들 사이에 나타나면서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짜증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면서 각종 불법이 난무하는 가하면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전화나 편지 등을 통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퍼뜨리는가 하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틀린



역대 최저 투표율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상무지구, 조선대 등 광주시내에 '지방선거 투표하고 월드컵을 보자'는 내용의 글귀를 담은 비행선을 띠우며 투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선거'는 자취를 감추었다.

장흥군 선관위는 29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괴편지' 1천여통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모 구청장 후보의 경우 "후처와 살고 있다"고, 또 다른 구청장 후보의 경우 "장모가 개발 예상 지역에 막대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광주 모 광역의원 후보는 "전과 28범이다"는 등 루머들이 흘러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독도는 생태보고...멸종위기 동·식물 대거 서식



섬장대



물수리



팽이갈매기



흑두루미

독도에 멸종 위기 1급과 2급 조류를 포함한 조류 107종과 식물 49종, 곤충 93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생태 조사단과 외부 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해 4개월 9개 분야에 걸친 사상 첫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 2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도에는 멸종 위기 1급인 매, 2급인 범매, 을매미, 솔개, 뿔쇠오리, 물수리, 고니, 흑두루미 등 8종을 비롯, 팽이갈매기 1만여

개체, 바다비체 60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조류는 검은방기해오라기와 중대비로 등 26종이 추가로 관찰돼 서식 조류가 전체 107종으로 나타났다.

식물은 율릉도 특산식물인 섬장대를 포함, 도깨비쇠고비 등 49종이 관찰됐으나 독도의 지형 및 기상 조건이 식물 생육에 적합하지 않아 육상에 비해 다양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곤충 중 가장 많은 종은 딱정벌레 목으로 22종이 확인됐고 나비 목과 파리 목이 각각 17종, 노린재 목과 매미 목이 각각 10종, 벌 목이 9종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우값 일주일새 10% 하락

내달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파

오는 6월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송아지를 비롯한 국내산 한우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우값 폭락을 우려한 '홍수출하' 등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주 초 한우값은 600kg 기준 수소가 380만 원으로 지난주 420만 원에 비해 40만 원(9.5%), 그리고 암소가 528만 원으로 지난주 550만 원보다 22만 원(4.0%)이 각각 하락했다. 송아지값도 5월 말 현재 암송아지가 28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가 하락했으며, 수송이자는 226만 원으로 3.4%가 떨어졌다.

한우값이 최근 들어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내산 소고기보다 절반 이상 값이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와 경쟁에 불과, 국내산 소고기와 외국산 소고기의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장과 9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두개이며, 김재철 동원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주도할 '여수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간다. 정·재계 및 관련 학계 인사들로 구성되는 중앙유치위원회는 3~4명의 부회

장과 9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두개이며,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하는 중앙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교섭에 나서게 되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유치 붐을 조성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2년 5월 12일 예상된다.

부터 같은 해 8월 12일까지 3개월동안 여수시 신항지구 전시장에서 박람회를 연다는 계획아래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박람회 사무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은 가장 먼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모로코(탕헤르)와 폴란드(브로츠와프)가 유치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또 그리스(테살로니키)와 이탈리아(트리에스티)도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unipark@



알고 나면 선거박사!
당첨되면 쿠키박사!



5·31 지방선거 어렵다구요? 알고 보면 쉬워요

퀴즈 대잔치!

